

2004. 2. 9, No.95

☐ Trade Focus

- Focus 1 : 환율변동과 외국인주식자금 유출가능성 /1
- Focus 2 : 중장기 대중국 무역 전망 /4
- Focus 3 : UN의 2004년 국가 및 지역별 경제전망 /8
- Focus 4 : G7 회담을 앞두고 엔-달러 및 원-달러 환율 등락 /10

☐ 세계 경제동향 Briefs

- 美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 연율 4%로 둔화 /11

☐ 동북아/FTA News

- 2004년 중국 경제발전 최대 장애는 에너지난 /12
- 통조림·냉동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인증제도 도입 /13
- 일본-필리핀 FTA 협상 개시 /14

☐ 주간 주요 경제지표



KITA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01호

Tel: 6000-5174 ~ 7 Fax: 6000-5170

홈페이지 : <http://tri.kita.net>



Focus 1

환율변동과 외국인주식자금 유출가능성

- 외국인 주식자금의 지속 유입되면서 주식보유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이를 고려할 때 환율급락 또는 경제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우리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비중은 증시개방 원년인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12월말 현재 40.1%에 달함
-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미국 11%, 일본 19%, 대만 20%를 고려하며 매우 높은 수준임

<외국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03. 12.15)>

	원화 기준	달러기준*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142조 7776억원	1,199억달러

* 2003년 평균환율로 환산

-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외환보유고를 추정해 보면 12월 중순 현재 외환보유고(1,530억 달러)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단기외채기준법, 3개월수입액+단기외채방식, Guidotti 모델 등을 이용해 보면 적정외환보유고는 999~1,444억불로 추정됨

<적정외환보유고 추정>

	적정외환보유고(추정)
a. 단기외채기준법	995
b. "3개월수입액+단기외채" 방식	1,044
c. Guidotti 모델*	1,444

* 단기외채+3개월수입액+외국인주식투자액의 1/3

□ 지난 수년간 환율변동과 외국인 주식매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환율급락시 환차익 실현을 위해 외국인 주식자금의 일시에 대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1996~2003년중 총 5차에 걸쳐 환율이 급락했으나 외국인은 이중 4차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오히려 순매수하였고 환율 급락후 상승으로 반전된 직후에도 외국인은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남

<환율변동과 외국인의 주식매매행태>

	환율하락시기/ 환율변동 ¹⁾	환율급락시			환율 급락후 상승 반전시 외국인주식순매수
		종합주가 지수 변화	외국인 주식순매수	보유주식 대비비율(%) ²⁾	
1차	'98.3-7(5개월)/ -26.0%	-38.6%	2,660억원	1.2%	순매수/-671억원(8월), 1,088억원(9)
2차	'98.10-'99.1(4개월)/ -15.3%	91.4%	28,092억원	22.5%	순매수/729억원(2), 4,441억원(3)
3차	'99.6-'00.3(10개월)/ -9.6%	17.8%	57,254억원	14.0%	순매수/198억원(4), 8,839억원(5)
4차	'02.1-7(7개월)/ -10.8%	-12.4%	-41,449억원 (-32.5억\$)	4.1%	순매도후 순매수/ -11,191억원(8), -231억원(9), 4,800억원(10), 18,170억원(11)
5차	'03.4-9(6개월)/ -8.6%	29.5%	85,832억원	11.1%	순매수/ 33,558억원(10) 18,176억원(11)

주 : 1) 환율하락 기간중 전체 누계치

2) 환율급락 직전 외국인 보유주식시가총액대비 주식순매도(순매수)의 비율

□ 한편 경제불안 요인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은 대부분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음

- 1996~2003년중 총 6차에 걸쳐 경제위기 또는 경제불안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우사태(2차)와 기아사태·외환위기(1차)의 경우 외국인은 보유주식의 13.6%, 10.4%를 각각 순매도하였음

-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아사태·외환위기(1차)와 세계경기침체·북핵문제(5차)의 경우 주가가 43.8%, 13.6% 각각 하락하여 여타 경제불안 요인이 발생한 경우보다 하락폭이 컸음
- 결론적으로 현재 외국인 보유주식규모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환율급락 또는 경제불안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들 자금이 일시에 대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음
- 외국인 주식투자 행태를 보면 외국인이 환차익을 기대하여 주식을 매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다만 제2의 기아사태·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o 그러나 이러한 경제불안 요인이 재현되더라도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경제불안요인 발생과 외국인 주식매매행태>

	발생사건(발생시기)	외국인 주식순매수			종합주가지수 변화
		매도기간	순매수규모(US\$기준)	비율 ¹⁾	
1차	기아사태(97.7), IMF관리체제 편입(97.12)	97.8-11(4개월)	-19,475억원 (-19.8억불)	10.4%	43.8% 하락 (726→408)
2차	대우사태(99.7)	99.5-9(5개월)	-54,742억원 (-46.0억불)	13.6%	7.0% 상승 (781→836)
3차	현대사태('00.4)	00.4(1개월)	198억원 (0.2억불)	0.0%	15.8% 하락 (861→725)
4차	미 테러 발생('01.9)	01.9(1개월)	-5,045억원 (-3.9억불)	0.8%	11.9% 하락 (545→480)
5차	미국 등 세계경기침체, 북핵사태 (2002년상반기)	02.2-9(9개월)	-54,153억원 (-43.3억불)	5.4%	13.6% 하락 (748→646)
6차	SK부정회계, 카드사 부실 ('03.3-4월)	03.2-4(3개월)	-21,188억원 (-17.4억불)	2.4%	보합 (600→599)

주: 순매도직전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순매도액의 비율

Focus 2

중장기 대중국 무역 전망

□ 전망의 기본 전제

—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7%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한국경제 역시 2010년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5%내외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를 전제로 함.

- 중국은 2020년의 경제규모를 2000년의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2%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여야 함.

— 중장기의 양국간 교역 환경 변화 전망

- 양국간 교역환경은 중기(2003~2007년)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유리한 반면, 장기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기 간	주요 환경 변화
중 기 (2003~07)	※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에 유리 - 중국경제의 성장기 진입 - 한중간 산업내분업에 따른 부품과 소재 수출 증대 -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장 기 (2008~12)	※ 중국의 대한 수출 확대에 유리 - 향후 4~5년내 중국의 기술경쟁력 제고 (전기전자) - 수입대체정책 성공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 대중 투자와 수출의 Trade-off관계 발생 * 현지조달 비중 확대, 중국내 생산품의 역수입 - 중ASEAN FTA, 중화권CEPA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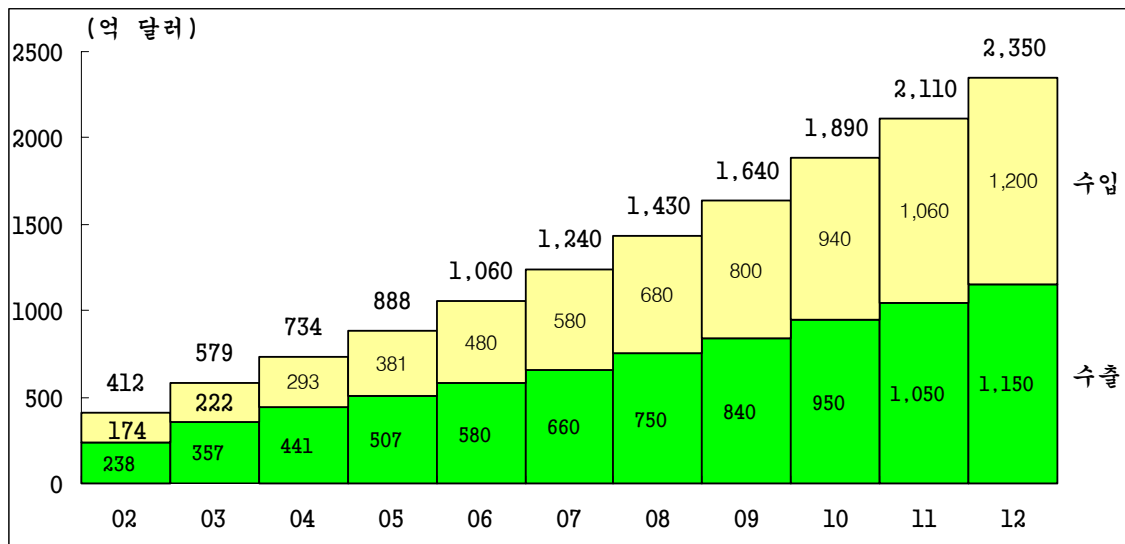
□ 양국간 교역액은 2003년 579억 달러에서 2006년 1,000억 달러, 2011년 2,000억 달러 달성 전망

— 양국의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 양국간 교역은 2003~2006년 중 연평균 26.7%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2006년 양국간 교역액 1,060억 달러 달성 전망

- 교역액(억 달러) : (02) 411 → (06) 1,060 → (2011) 2,110
- 수 출(억 달러) : (02) 237 → (06) 580 → (2011) 1,050
- 수 입(억 달러) : (02) 174 → (06) 480 → (2011) 1,060

※ 한중 정상회담시(2003.7) 향후 5년내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합의

<한중 교역 추이 전망>



— 대중 수입증가율이 대중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로 전환

- 대중 수출 증가율 : (2003~07년) 22.7%→(2008~12년) 11.8%
- 대중 수입 증가율 : (2003~07년) 27.2%→(2008~12년) 15.6%

□ 석유화학,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2003~07년 기간 중 대중국 교역 증가율이 과거 5년간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전기전자 : 양국간 산업내분업 확대로 2011년 양국간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전망

○ 한중 교역중 전기전자산업 비중: (2002) 33.1% → (2012) 51.1%

○ 2011년 이후 중국에 대해 전기전자업종에서 무역수지 적자 전환

— 자동차 :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업체의 중국진출이 확대로 산업내분업 확대 전망

— 철강, 석유화학 :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 한국기업 내수시장 목표투자로 교역증가율 점차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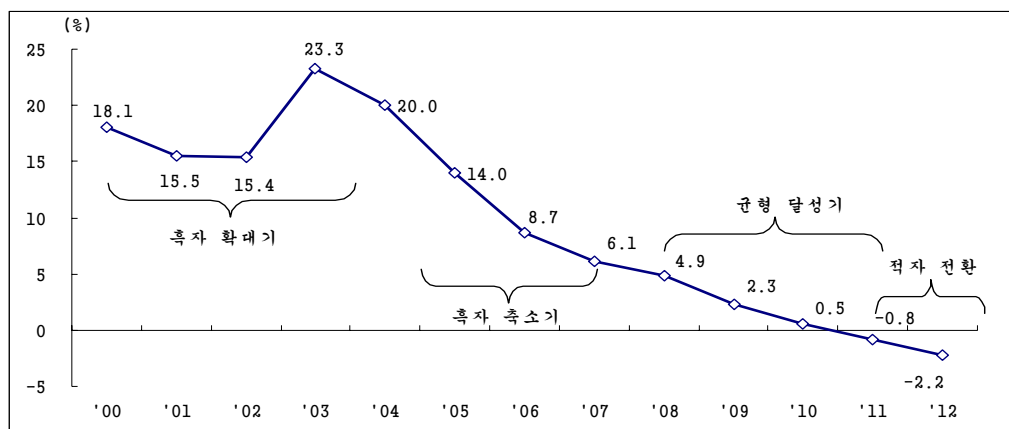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대중국 교역 전망>

(억달러,%)

업종	대중국 교역액			연평균증가율(%)		구성비 (%)		
	2002	2007	2012	03~07	08~12	2002	2007	2012
전업종	411.5	1240.0	2350.0	24.7	13.6	100.0	100.0	100.0
일차상품	57.1	94.4	133.9	10.6	7.2	13.9	7.6	5.7
섬유류	53.2	108.7	185.7	15.4	11.3	12.9	8.8	7.9
철강금속	36.9	97.1	183.0	21.4	13.5	9.0	7.8	7.8
기계류	31.9	93.4	170.0	24.0	12.7	7.8	7.5	7.2
전기전자	136.4	564.3	1202.0	32.8	16.3	33.1	45.5	51.1
- 산업용전자	61.2	265.3	557.4	34.1	16.0	14.9	21.4	23.7
* 컴퓨터	28.5	122.0	270.3	33.8	17.3	6.9	9.8	11.5
* 무선통신기기	29.1	136.1	236.0	36.2	11.6	7.1	11.0	10.0
- 전자부품	41.8	185.1	431.5	34.6	18.4	10.2	14.9	18.4
* 반도체	19.5	83.4	184.4	33.8	17.2	4.7	6.7	7.8
석유화학	40.8	68.1	92.8	10.8	6.4	9.9	5.5	4.0
자동차 및 부품	4.2	27.4	71.0	45.4	21.0	1.0	2.2	3.0
- 자동차	2.3	10.0	20.3	34.8	15.1	0.5	0.8	0.9
- 자동차부품	2.0	17.3	50.7	54.7	24.0	0.5	1.4	2.2

-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금년까지 흑자규모가 확대된 후, 점차 축소되어 2008년 이후에는 균형수준 달성 전망
 -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2004년까지 확대 추세가 지속된 후, 200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 (2003년) 135억 달러→ (2007년) 80억 달러 → (2011년) -10억 달러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교역액 비율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
 - 총교역 대비 무역수지 흑자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4년에는 20.2%로 하락, 2008년 이후 5% 이내로 축소되어 양국간 교역이 균형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입증가율이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장기화되어 2011년 이후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교역액 비율 추이 전망>



-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대중국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노력 필요

Focus 3

UN의 2004년 국가 및 지역별 경제전망*

□ 선진국은 3% 내외, 개도국은 5% 내외의 경제성장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겠으며 EU지역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2% 이상 성장

○ 실업률은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개도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사우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세가 확대

○ 한국은 5% 성장으로 중국(8.5%)을 제외한 홍콩(4.3%), 대만(4%), 싱가포르(4.5%)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높을 전망

— 체제 전환국 중에서는 중·동 유럽의 성장세는 지속되겠으나 독립국가연합의 성장세는 지난해에 비해 둔화

□ 교역은 물량기준으로 선진국은 6%, 개도국은 9% 후반대 성장

— 개도국중 중국은 16%대, 한국 등 동·남 아시아는 12%대 성장세

〈2004년 지역별 교역증가율 전망〉

(%)

	수출			수입		
	2002	2003(추정)	2004(전망)	2002	2003(추정)	2004(전망)
세 계	3.8	5.1	7 1/4	2.3	4.2	7 3/4
선진국	0.8	1.7	6	1.4	2.8	6 1/2
북 미	-1.2	0.6	7	2.9	4.3	7
서유럽	0.4	1.4	5 3/4	0.4	1.9	6 1/4
일 본	8.0	6.0	5	1.9	5.0	5 1/4
체제전환국	6.9	7.2	6 1/4	8.2	9.1	9 3/4
개도국	9.7	11.6	9 3/4	3.7	6.6	11
동·남아시아 ¹⁾	13.6	15.7	12 1/2	8.1	10.5	12 3/4
중국	23.6	25	16 1/2	25	30.1	14 3/4

주 : 1) 중국제외

자료 :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4

* UN의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4 (Jan, 2004) 자료를 요약한 것임

(%)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실업률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세 계	1.7	2.5	3 1/2	...	...	...	...	...	...
선 진 국	1.2	2.0	3	1.3	1.5	1 1/4	6.8	7.0	7
미 국	2.2	3.0	4	1.6	2.3	1 1/2	5.8	6.0	6
캐나다	3.3	2.0	3 1/4	2.2	2.7	1	7.7	7.7	7 1/2
일 본	-0.4	2.5	2 1/2	-0.9	-0.9	- 1/4	5.4	5.2	5 1/4
EU-15국	1.0	0.9	2 1/4	2.3	2.0	2	7.7	8.1	8 1/4
핀란드	1.4	1.3	3	1.7	-0.7	0	9.1	9.3	9 1/4
프랑스	1.2	0.5	1 3/4	1.9	2.0	1 3/4	8.8	9.4	9 3/4
독 일	0.2	0.0	2	1.3	0.6	1/2	8.6	9.6	10 1/4
이태리	0.5	1.0	2	4.7	4.5	4	9.0	8.7	8 1/2
네덜란드	0.2	0.0	1	3.5	2.0	1 1/2	2.8	4.4	6
스페인	2.0	2.3	3	3.1	2.3	1 3/4	11.3	10.6	9 1/4
스웨덴	1.9	1.3	2 1/2	2.4	2.0	3/4	4.9	5.6	5 1/2
영 국	1.7	2.0	3	1.6	2.9	3	5.1	5.1	5
중·동 유럽	2.7	3.3	4	5.2	3.2	3 1/2	...	...	...
헝가리	3.3	2.9	3 1/2	5.3	4.8	6	8.0	6.0	5
체 코	2.0	2.5	4	1.8	0.0	2	9.8	10.0	9
독립국가연합	4.7	6.5	5 1/4	14.8	11.7	10 1/4	...	...	...
아르메니아	12.9	11.0	8	1.0	4.0	3 1/2	...	...	...
카자흐스탄	9.5	9.0	8	6.0	6.5	6 1/2	...	...	...
개도국	3.2	3.8	5	6.8	7.4	6 1/2	...	...	...
중남미	-0.7	1.4	3 1/2	10.5	12.9	7 3/4	...	...	...
멕시코	0.9	1.6	3 3/4	5.0	4.7	3 1/2	...	...	...
아르헨티나	-10.9	7.0	3 1/2	25.9	15.7	8	...	...	...
브라질	1.5	0.2	3	8.4	15.9	8	...	...	...
아프리카	2.9	3.2	4 1/4	8.4	12.6	16 3/4	...	...	...
서 아시아	2.4	2.6	4	16.3	10.5	12 1/2	...	...	...
터 키	7.8	6.4	5 3/4	45.0	25.8	32 1/2	...	...	...
이 란	7.6	5.9	3 1/2	14.3	16.0	15 1/2	...	...	...
인디아	4.5	6.1	6 1/4	4.1	4.2	4 1/2	...	...	...
동아시아	5.9	5.3	6 1/4	1.7	2.1	2 1/2	...	...	...
한 국	6.3	2.7	5	2.7	3.5	2 3/4	...	...	...
중 국	8.0	8.5	8 1/2	-0.7	1.0	1	...	...	...
홍 콩	2.3	2.5	4 1/4	-3.8	-2.7	1	...	...	...
대 만	3.6	3.1	4	-0.2	-0.3	1/2	...	...	...
남아시아	4.5	5.9	6	4.2	4.4	4 3/4	...	...	...
인도네시아	3.7	3.9	4 1/2	11.9	7.0	6 3/4	...	...	...
말레이시아	4.1	5.0	6 1/4	1.8	1.4	2	...	...	...
필리핀	4.4	3.9	4 1/4	3.1	3.2	3 3/4	...	...	...
싱가포르	2.2	1.0	4 1/2	-0.4	0.6	1	...	...	...
태 국	5.3	5.8	5 3/4	0.6	1.7	1 3/4	...	...	...

주 : 지역별 자료는 국가별 수치(1995년 달러환산 불변가격, 노동인구)를 가중평균 한 것임
 자료 :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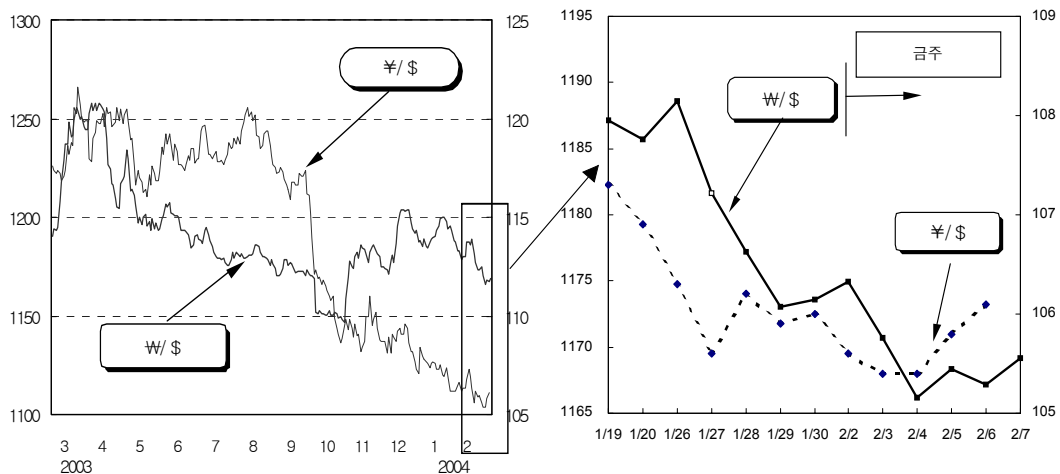
Focus 4

G7 회담을 앞두고 엔-달러 및 원-달러 환율 등락

□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주초 하락세를 나타내던 엔-달러/원-달러 환율은 주중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통화가치 절상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반 상승세

— 환율 하락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재경부 및 한은 총재의 발언과 관련 원-달러 환율은 주중 상승세로 반전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장단기 추이)>



<주간 환율동향>

	2003 년말	2003년중 최고치	일자	전주말 (a)	2004. 2.2~2.7						주간변동율 (b/a)
					2.2	2.3	2.4	2.5	2.6	2.7(b)	
₩/\$	1197.8	1258.0	4/7	1174.9	1174.9	1170.7	1166.2	1168.3	1167.2	1169.2	-0.5
₩/100¥	1119.6	1121.0	12/26	1111.0	1111.8	1109.0	1106.0	1108.0	1103.9	1106.0	-0.5
₩/EUR	1502.6	1492.4	12/26	1465.6	1466.6	1457.0	1463.8	1465.1	1466.4	1485.6	1.4
¥/\$	107.4	121.7	3/21	106.0	105.6	105.4	105.4	105.8	106.1	-	0.1
\$/EUR	1.259	1.2445	12/24	1.2392	1.2441	1.2548	1.2539	1.2554	1.2545	-	-1.2

주 1) 원화환율은 기준환율, 주요국환율은 뉴욕종가 2) \$/EUR 주간변동율은 a/b

Brief 1

美 작년 4/4분기 경제성장을 연율 4%로 둔화 (WSJ, 2/2)

- 미국의 지난 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 3/4분기의 8.2%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간 성장률은 3.1%로, 2002년의 2.2%를 훨씬 웃돌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지난해 4/4분기 美 경제성장률이 전분기(8.2%)의 절반수준인 연율 4%로 크게 둔화 됐지만, 경기회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번 4/4분기 GDP성장률 수치는 美 정부의 첫 번째 추정치로 앞으로 두 차례의 수정이 더 있을 예정
 - 한편 미연준이 인플레이율 측정수단으로 선호하는 근원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는 4/4분기에 연율 0.7% 상승해 1962년이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연준이 상당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와 더불어 금년 1월 시카고 전미구매관리자협회(NAPM)의 제조업지수가 12월의 61.2에서 65.9로 상승해 1994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하였고 1월 미시간大 소비자신뢰지수도 12월의 92.6에서 103.8로 상승해 2000년 12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 다만 4/4분기의 소비 증가율이 3/4분기의 6.9%에서 2.6%로 둔화되었고 실질 개인가처분 소득도 0.5% 감소했으며, 저축률은 2.3%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하락했는데 이는 장기 평균치인 7.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여서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함
 - 또한 기업의 감원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기업이 여전히 신규고용을 현저히 늘릴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가 뚜렷이 없는 것도 문제

News 1

2004년 중국 경제발전 최대 장애는 에너지난
(경제일보, 2/6)

□ 올해도 중국이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난 해결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난해 9.1%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15%를 초과하여 에너지 과소비형 성장을 이룸

— 전력소비량 증가속도는 지난 25년간 최고치를 기록

□ 전력생산용 원자재 사용량도 최고치를 기록, 산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음

— 2003년 전체 석탄 생산량이 16억 톤을 초과하였으며, 석유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도 1억 톤대(전년대비 3천 톤 증가)에 진입

□ 이처럼 중국이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에너지 공급원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

—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시 전력수요가 줄자 그 후 3년간 전력공급 확대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

— 중국의 제조업 성장이 중공업에 집중되어 전력소비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 심화

□ 중국이 올해 7%이상의 성장을 위해 11%정도의 전력공급 증가가 필요한 상황

— 16개 성(시)이 올해 전력부족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특히 절강, 사천, 산서, 호남, 절강, 강소, 복건 등 7개성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전망

News 2

통조림 · 냉동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인증제도 도입
(日經, 2/5)

- 일본 농수산성은 통조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인증하는 신제도를 2006년까지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
 - 일본농림규격(JAS)에 신기준인 「상세표시인증JAS(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수산성은 내년을 목표로 JAS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 신기준의 도입으로 외국산 쇠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공식품의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
 - 현재 고기와 야채 등 신선식품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공식품 중에도 장어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통조림, 냉동식품 등 가공도가 높은 식품의 원료는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 신제도는 정부공인 민간인증기관이 업자의 신청에 따라 식품의 생산 유통과정 등을 조사하여 정확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품에 인증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증을 얻은 업자는 신JAS 마크를 식품에 표시할 수 있음
- 신규격의 취득은 강제제도가 아니라 가공유통업자의 자율에 맡겨질 예정

News 1

일본-필리핀 FTA 협상 개시
(Kyodo News, 2/5)

- ☐ 일본과 필리핀은 2월 4-5일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최하였음
- ☐ 현재 필리핀 측의 최대 협상 목표는 자유로운 인적이동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상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 IT 엔지니어,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 인력의 보다 자유로운 일본 시장 진출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은 일본인의 실업을 우려하여 필리핀 의료직 전문인력의 진출을 꺼려하는 반면, IT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현재 일본은 매년 필리핀에 대해 약 100,000개의 비자를 발행해주고 있으며, 이 중 70,000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 농산물은 일본-필리핀 FTA 협상에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필리핀산 바나나가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등 필리핀산 열대 과일은 이미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
- ☐ 한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투자 및 서비스 분야 자유화와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News 2

COMESA, 12월부터 관세동맹 발효 계획
(Times of Zambia, 2/4)

-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은 2004년 12월부터 관세동맹을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COMESA 회원국들은 3월 회의에서 관세동맹 발효를 위한 최종사안을 논의할 계획임
 - COMESA PR 담당자인 Mweusi Karake에 따르면, 12월 8일부터 공식적으로 관세동맹을 발효시킬 계획이지만 3월회의 결과에 따라 날짜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함
 - 관세동맹이 발효되면 COMESA 회원국간 관세철폐뿐 아니라 역외국에 대해 공통 관세를 적용하게 됨
- COMESA 회원국은 앙골라, 브룬디, 이집트, 케냐, 수단, 우간다, 잠비아, 에디오피아, 나미비아 등 동남 아프리카 20개국임

News 3

인도-태국 FTA, 인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에 적신호
(Business Line, The Hindu, 2/4)

- ICRA Advisory Services라는 컨설팅 업체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국 FTA가 발효될 경우 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이 급증하여 인도의 동종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함
 - 인도는 조세구조와 높은 인프라 비용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제조비용이 태국에 비해 15-20% 가량 높고 태국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이 충분한 상황임

【주간 주요 경제지표】

1. 무역

(백만달러, %)

	2003년			2004년	
	년간	1월	누계	1월	누계
수출 (増減率)	194,325 (19.6)	14,320 (25.8)	14,320 (25.8)	19,073 (33.2)	19,073 (33.2)
수입 (増減率)	178,784 (17.5)	14,492 (27.9)	14,492 (27.9)	16,126 (11.3)	16,126 (11.3)
수출입차	15,541	-172	-172	2,947	2,947

2. 외환

	'03末	'04.1末	2.2	2.3	2.4	2.5	2.6	2.7	週初比%
₩/US\$	1,197.8	1,174.9	1,174.9	1,170.7	1,166.2	1,168.3	1,167.2	1,169.2	-0.5
₩/100¥	1,119.6	1,111.0	1,111.8	1,109.0	1,106.0	1,108.0	1,103.9	1,106.0	-0.5
¥/US\$	107.4	106.0	105.6	105.4	105.4	105.8	106.1	-	0.1

3. 금융

	'03末	'04.1末	2.2	2.3	2.4	2.5	2.6	週初比%
회사채 ¹⁾ 수익율(3년)	5.58	5.65	5.75	5.75	5.71	5.71	5.75	-
주가지수 ²⁾	810.71	848.50	854.89	839.87	835.50	840.92	850.23	-0.5
외국인 순 매수(억원) ³⁾	138,779	40,441	556	-1,447	507	-1,803	2,014	-
KOSDAQ ²⁾	448.70	441.45	444.51	437.81	437.45	436.87	437.32	-1.6

1) AA등급 무보증 사채의 단순 평균 수익률 2) 종가 기준 3) 연도 말 및 월 말은 누계치

4. 국제금융

	'03末	'04.1末	2.2	2.3	2.4	2.5	2.6	週初比%
LIBOR (3월, \$)	1.16	1.13	1.13	1.13	1.13	1.13	1.13	-
뉴욕주가 지수(D/J)	10,454	10,488	10,499	10,505	10,471	10,496	10,593	0.9
NASDAQ	2,003	2,066	2,063	2,066	2,014	2,020	2,064	0.0
동경주가 지수	10,677	10,784	10,777	10,642	10,447	10,465	10,461	-2.9

5. 원자재

	'03末	'04.1末	2.2	2.3	2.4	2.5	2.6	週初比%
원유 Dubai(\$/bbl)	28.52	27.88	-	28.19	27.84	27.17	27.74	-1.6
256M 반도체 (US\$/개) ¹⁾	5.77	5.99	6.00	6.03	6.03	6.01	6.01	0.2

1) 아시아 현물시장가격 32M×8 133MHz